

문화일보

낮보다 저녁이후에 지갑여는 중국 “韓기업들, 中야간경제에 주목하라”

기사입력 2020-04-28 12:01



무역협회 청두지부 보고서

“밤에 하루소비 60% 이뤄져”

중국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야간경제'가 활성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청두(成都)지부는 28일 발표한 '중국 야간경제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이 소비주도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야간경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야간경제는 중국 도시 하루 소비의 60%가 발생하는 큰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소비주도 경제 촉진, 야간 상업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자,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 40여 개 도시도 잇따라 문화·관광·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야간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박물관·미술관·서점 등의 야간 개장을, 광저우(廣州)는 축구·탁구 등의 야간 스포츠 경기 개최 등을 통해 야간경제를 촉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야간경제 활동을 쇼핑·오락·야식·여행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결과 대도시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온라인 야간경제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웹서핑, 콜택시, SNS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소도시의 야간경제 활동은 동영상 시청, 음악 스트리밍 등 오락 위주로 편중됐다.

고범서 무역협회 청두지부장은 “중국의 야간경제는 높은 모바일 인터넷 사용률과 지방 정부의 정책 등에 힘입어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들은 야간관광 인프라 조성, 야간공연을 위한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분야에서 기회를 탐색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 | 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 | 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1&aid=0002426041>
